

CEO Report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김세중·김유미

06_호

2022.10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번 설문에는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율은 90%임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험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CEO가 많았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에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202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 손해보험은 장기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나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되었고, 2022~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

설문조사 배경

- 2022년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급등,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보험산업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함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국제 공급망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에너지, 광물,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
 -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였고, 한국은행 또한 2022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보험산업은 2023년 IFRS17과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적 노력이 요구됨
-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 진단, 제도 및 환경 변화 대응 전략, 영업전략 변화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불투명했던 2020년 처음 시도되었으며, 2022년 3회째를 맞고 있음
 - 이번 설문에는 총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90%이고 응답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91.3%임
 - 본 설문은 대부분 척도형,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순위까지 묻는 순위형 문항은 순위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함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중요도를 묻는 질문은 1순위 0.5점, 2순위 0.3점, 3순위 0.2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한 후 단답형과 같이 분석함
-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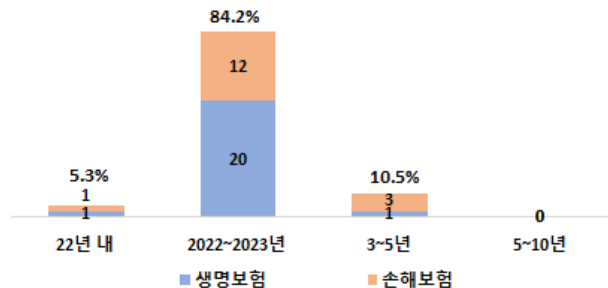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1. 경제환경 변화

○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CEO들은 2022년부터 확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1~2년 내에 해소 가능한 단기적 현상으로 전망하였으나, 3~5년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022~2023년까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CEO는 84.2%로 나타났고, 3~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10.5%로 나타남

〈그림 II-1〉 인플레이션 지속 기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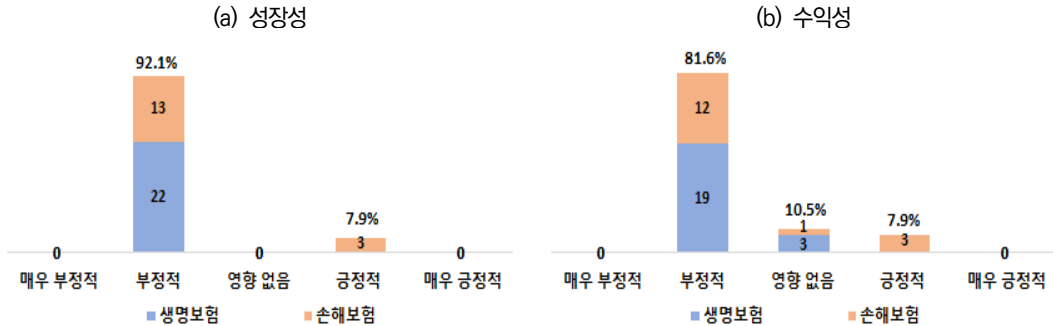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CEO 중 92.1%가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성장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81.6%가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인플레이션 확대가 보험 수요, 보험금 청구액, 사업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는 연구결과와 일치함
 -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확대로 보험계약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면 보험 수요가 줄어들고 계약해지가 증가할 수 있으며, 필수 소비에 대한 가격부담이 확대되면서 미래 위험에 대한 소비여력이 악화될 수 있음

1) 윤성훈(2022. 1),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CEO Brief』, 제2022-2호, 보험연구원

〈그림 II-2〉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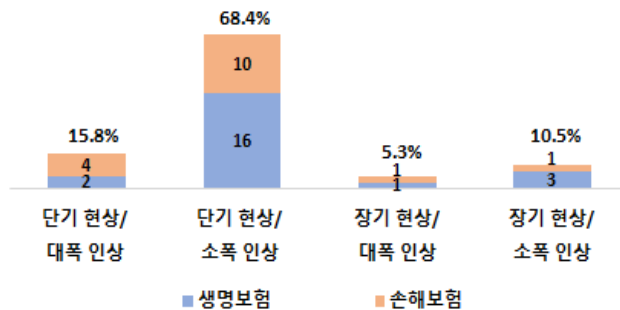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인플레이션 확대에 의한 금리 인상 기간과 폭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현상이며 소폭 인상을 예측하는 CEO가 많았으나, 대폭 인상 또는 장기적 금리 상승을 전망한 CEO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3~2024년 금리 인상의 지속성과 폭에 대해서는 단기 현상이며 소폭 인상만 예상하는 CEO가 68.4%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단기적이지만 금리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CEO도 15.8%로 나타났고, 금리 인상은 높지 않지만 장기적인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CEO도 10.5%로 나타남

〈그림 II-3〉 2023~2024년 금리 인상의 지속성과 폭 전망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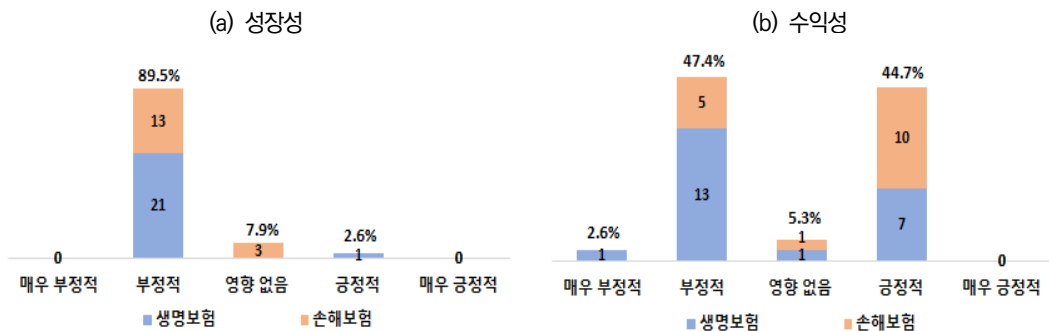
○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금리 상승은 보험회사 성장성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대답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답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명보험 CEO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금리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 성장성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명보험산업에

영향이 클 수 있음

-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장기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상품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음
- 시중금리의 상승은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 및 자본확충 비용부담은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II-4〉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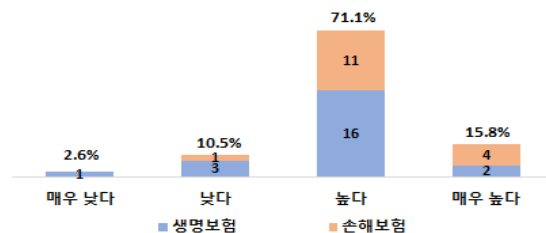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대부분의 CEO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함

- 설문에 응답한 CEO 중 71.1%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CEO의 비중도 15.8%로 나타남
- 최근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의 신호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²⁾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림 II-5〉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2) 7월 13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936%로 전일 대비 4bp 하락한 반면 2년물 금리는 3.138%로 9bp 가량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차가 0.2%p를 상회함(2000년 이후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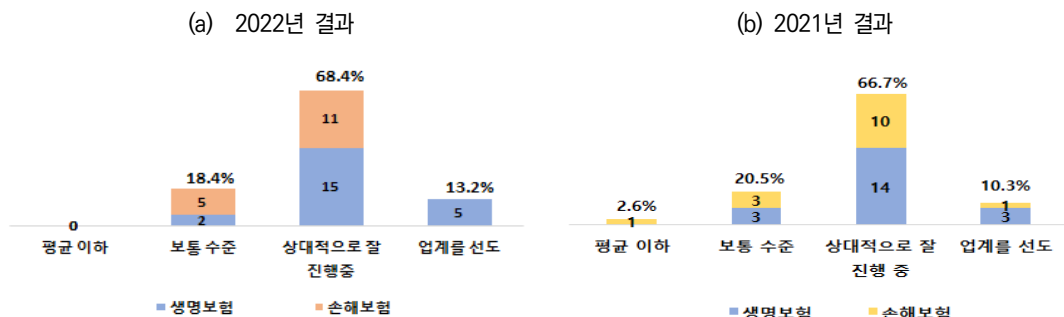
- 경기침체는 보험수요 위축, 보험금 청구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 확대, 실손 및 자동차 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연 등 보험산업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제도 및 환경 변화

가. 제도변화 대응

-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준비 수준이 보통을 넘어선다는 응답 비중이 2021년 77.0%에서 2022년 81.6%로 4.6%p 상승함
-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모두 생명보험회사로, 장기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제도변화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6〉 IFRS17, K-ICS에 대한 대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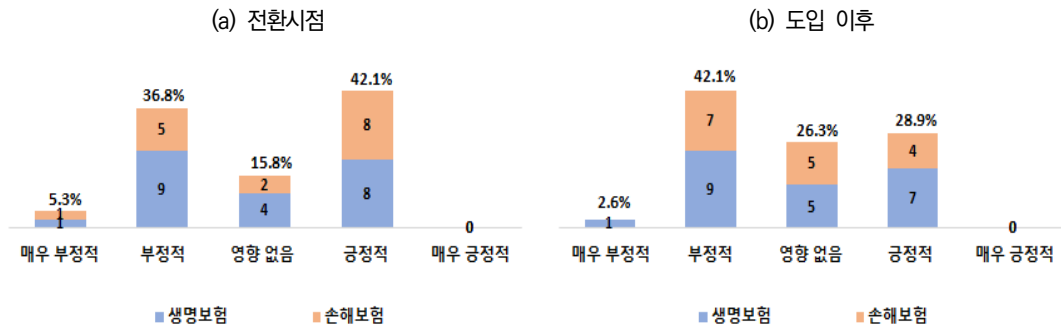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새로운 제도 도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혼재되어 나타났으나 전환시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소폭 높았고 도입 이후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소폭 높게 나타남
- 최근 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RBC비율 하락 문제는 새로운 제도 도입 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전환 시점에서는 현재의 경제환경이 긍정적일 수 있으며,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는 제도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전반적으로 전환시점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CEO들이 도입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응답함

- 한편, 과거 저금리 기간 동안 신제도 도입 우려가 컸던 보험회사의 경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II-7〉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새로운 제도 도입 효과에 미치는 영향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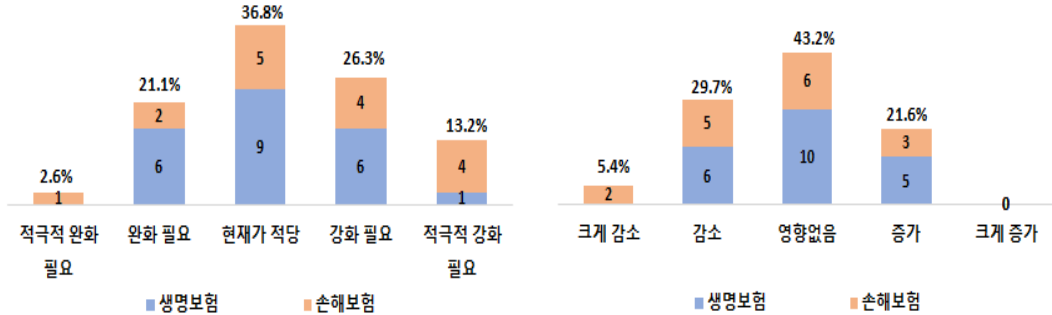
-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한 평가는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음
 -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한 평가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3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5%로 보다 완화가되어야 한다는 응답 23.7%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남
 - 수수료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은 전속채널 보유 여부, GA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보다 GA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보험회사가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후 GA채널에서의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 이후 GA채널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으나 감소했다는 응답이 35.1%로 증가했다는 응답(2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8〉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한 평가

(a)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 변화 필요성

(b)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1200% 룰) 이후,

GA채널 매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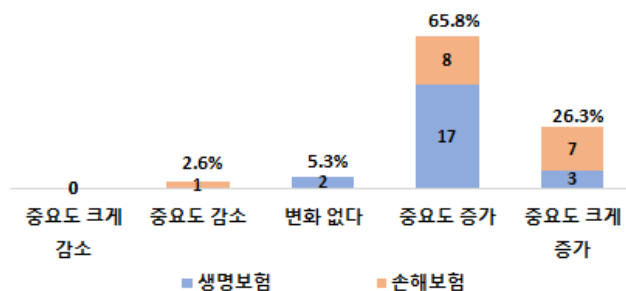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나.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

○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

- (지난 1년 대비)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65.8%,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들은 26.3%로 92.1%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 또는 큰 폭 증가를 예상함

〈그림 II-9〉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 변화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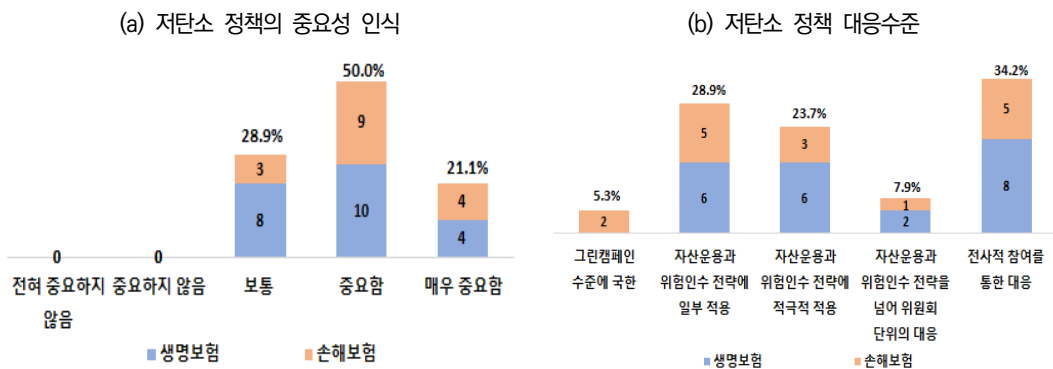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CEO는 71.1%

로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CEO는 없었음

- 그러나 저탄소정책에 대한 대응수준은 자산운용과 위험인수 전략에 일부 적용하는 수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준, 전사적 참여를 통해 대응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실제 대응수준은 아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탄소 관련 위험인수는 생명보험의 경우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저탄소 정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10〉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과 대응수준



주: 1)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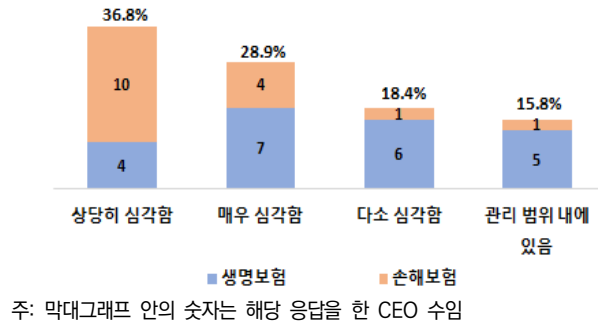
2) 위원회 단위의 대응은 회사 내 담당 컨트롤타워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전사적 참여를 통한 대응은 저탄소정책을 회사의 경영전략 전반에 반영하는지를 의미함

다. 보험산업 지속 가능성

○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비중이 높고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CEO들의 경우 대부분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한 반면, 생명보험 CEO들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하다고 답변함

-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거나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한 CEO의 비중이 65.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누어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CEO의 87.5%가 매우 심각하거나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큰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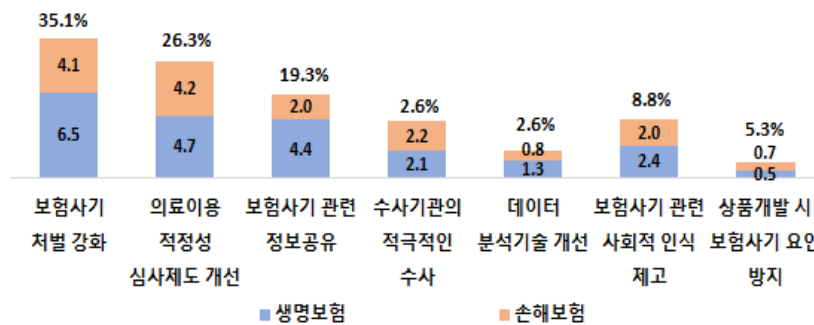
〈그림 II-11〉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금 누수의 심각성 인식



○ 보험사기 대응 방안으로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의료이용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도 공감함

- 보험사기의 대응방안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보험사기 처벌 강화(35.1%), 의료이용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26.3%),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19.3%), 사회적 인식제고(8.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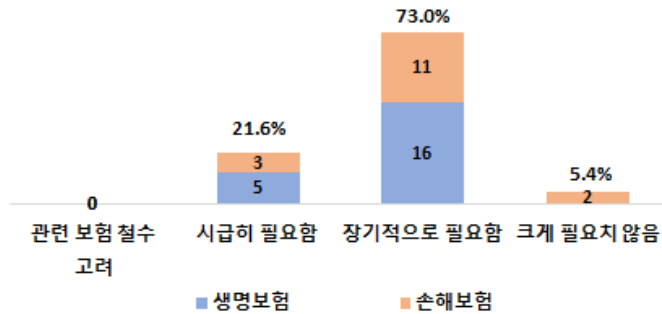
〈그림 II-12〉 보험사기 대응방안으로 필요한 수단



○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히 필요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3.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제도적 완비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됨

〈그림 II-13〉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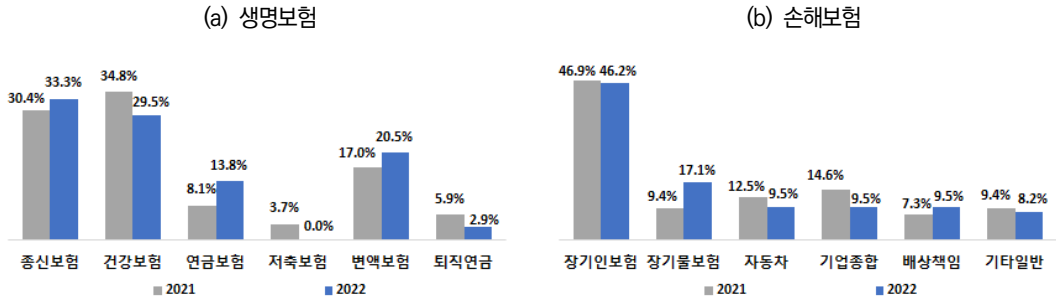


주: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3. 영업전략 변화

- 생명보험회사의 향후 2~3년 간 주력 상품전략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 비해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됨
 -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 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보장성보험 강화 기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2021에 비해 2022년에는 건강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적연금 개혁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적연금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명보험 CEO들의 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2021년에 비해 높아졌음
 - 또한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2021년과 거의 동일한 비중(46.2%)으로 장기인보험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에 비해 장기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인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선택한 손해보험 CEO의 비중은 2021년 46.9%에서 2022년 46.2%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 반면 자동차, 기업종합 보험을 선택한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고, 장기물보험을 선택한 비중은 2021년 9.4%에서 2022년 17.1%로 확대되었으며, 배상책임보험 또한 2021년 7.3%에서 2022년 9.5%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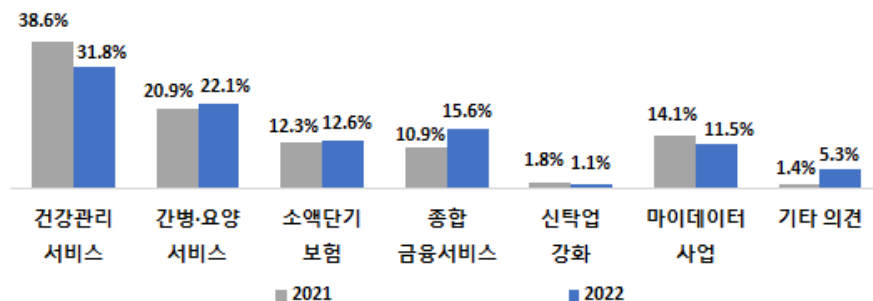
〈그림 II-14〉 향후 2~3년간 주력 상품전략(순위형)



○ 신사업영역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한 비중은 2021년에 비해 축소되었고,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됨

- 건강관리서비스가 중점 분야라고 응답한 보험회사 CEO는 2021년 38.6%에서 2022년 31.8%로 축소되었고, 간병·요양 서비스는 2021년 20.9%에서 2022년 22.1%로 큰 변동이 없었음
- 마이데이터 사업은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1년 14.1%로 세 번째로 높은 신사업영역으로 고려되었으나 2022년 11.5%로 선택한 비중이 축소되었고, 소액단기보험은 2021년(12.3%)과 유사한 12.6%의 비중을 나타냄
- 종합금융서비스를 선택한 비중은 2021년 10.9%에서 2022년 15.6%로 확대되었고 이는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기타의견으로는 글로벌 보험회사 인수,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분야, 기업 분야(Industrial Area) 등이 제시되어 신사업으로 고려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그림 II-15〉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신사업영역(순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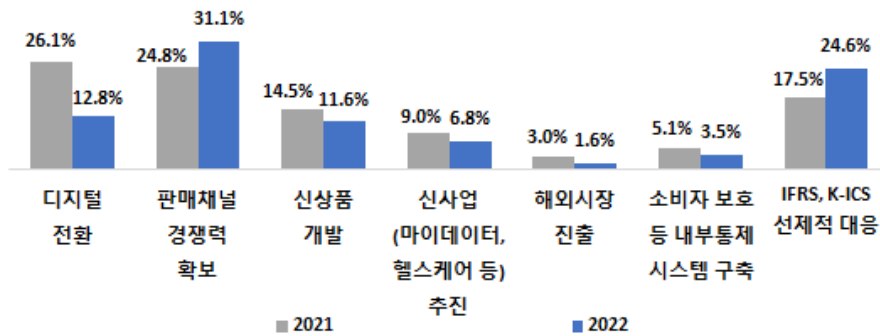


주: 무응답은 생명보험 2명임

○ 2022~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202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나, 디지털 전환의 비중이 축소되고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

- 2021년 26.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던 디지털 전환은 2022년 12.8%로 응답률이 크게 축소되면서 최우선 분야에서 3번째 우선분야로 전환됨
- 한편 앞선 설문문항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 CEO는 작년에 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제판분리 추세와 1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제도 등 당면과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여짐
- 신사업 추진 또는 해외시장 진출 등의 장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의 순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6〉 2021~2022년 중 우선순위 분야(순위형)



III

요약 및 시사점

- 보험회사 CEO들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경제환경 변동성 확대가 IFRS17과 K-ICS 등 신제도 도입 결과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
 -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협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가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응답함
 -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CEO가 많았으나 도입 이후에는 경제환경 변동성 확대가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
- 보험회사 CEO들은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과 사업구조 개편,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으며, 디지털전략의 중요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CEO들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에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전년도 설문 대비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였고,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며, 2022~2023년 중 우선순위 분야로는 작년 대비 판매채널 경쟁력과 신제도 대응 비중이 상승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지난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 손해보험은 장기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
 -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나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되었고, 2022~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2023년 예정된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전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임

-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 저성장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여건에서 보험회사는 성장성 및 수익성 유지를 위한 상품 전략, 판매채널 전략, 보험금 누수 억제, 사업비 관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은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 변동을 통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전략 운용에 있어 선택지를 좁히는 제약조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디지털화, 신사업 영역 확대, ESG대응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 다가올 다양한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임

부록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문항

가. 경제환경 변화

1.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 해주세요)

- ① 2022년 내 ② 2022~2023년 ③ 3~5년 후 ④ 5~10년 후

1-1.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귀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성장성					
수익성					

2. 2023~2024년 금리 인상 of 지속성과 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① 단기 현상/대폭 인상 ② 단기 현상/소폭 인상
③ 장기 현상/대폭 인상 ④ 장기 현상/소폭 인상

2-1.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귀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성장성					
수익성					

3.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나. 제도 및 환경 변화

4. IFRS17, K-ICS에 대한 귀사의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 생각하십니까?

평균 이하	보통 수준	상대적으로 잘 진행 중	업계를 선도

4-1.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새로운 제도 도입 효과에 어떤 영향(단기, 장기)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환시점					
도입 이후					

5. (지난 1년 대비) 향후 1년간 귀사의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됩니까?

중요도 크게 감소	중요도 감소	변화 없다	중요도 증가	중요도 크게 증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6-1. 저탄소정책에 대한 귀사의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린캠페인 수준에 국한
- ② 자산운용과 위험인수 전략에 일부 적용
- ③ 자산운용과 위험인수 전략에 적극적 적용
- ④ 자산운용과 위험인수 전략을 넘어 위원회 단위의 대응
- ⑤ 전사적 참여를 통한 대응

7.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금 누수의 심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심각함	매우 심각함	다소 심각함	관리 범위 내에 있음

8.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순위 응답)

- ① 보험사기 처벌 강화 ② 의료이용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 ③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④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 ⑤ 데이터 분석기술 개선 ⑥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 ⑦ 상품개발 시 보험사기 요인 방지

1순위	2순위	3순위

9.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보험 철수 고려	시급히 필요함	장기적으로 필요함	크게 필요치 않음

10.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 완화 필요	완화 필요	현재가 적당	강화 필요	적극적 강화 필요

10-1. 2021년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1200% 룰) 이후, 귀사의 GA채널 매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크게 감소	감소	영향 없음	증가	크게 증가

다. 영업전략과 제도 변화

11. 향후 2~3년간 주력 상품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A) 생명보험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종신보험 ② 건강보험 ③ 연금보험 ④ 저축보험 ⑤ 변액보험 ⑥ 퇴직연금

B) 손해보험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장기인보험 ② 장기물보험 ③ 자동차 ④ 기업종합 ⑤ 배상책임 ⑥ 기타일반

* 주: 1) 기업의 단체상해보험은 기업종합에 포함
2) 기타일반은 화재, 해상, 기술, 비용보험 등

12. 신사업영역 중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건강관리 서비스 ② 간병·요양 서비스 ③ 소액단기보험
④ 종합 금융서비스 ⑤ 신탁업 강화 ⑥ 마이데이터 사업
⑦ 기타 의견 ()

13. 2021~2022년 중 귀사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디지털 전환 ②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③ 신상품 개발
④ 신사업(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추진 ⑤ 해외시장 진출
⑥ 소비자 보호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⑦ IFRS, K-ICS 선제적 대응

저자약력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CEO Report 2022-06호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